

사회조사 고령자 조사표 개발을 위한 인지적 기법 적용 연구

백선미 · 박선희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사회통계」 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 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 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1
2. 고령자 정의	2
제2장 연구방법	4
1. 조사원 보고	4
2. 초점집단면접	5
3. 인지면접	8
4. 결과분석	15
제3장 연구결과	16
1. 평균 응답연령 및 조사표 작성 방법	16
2.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17
3. 종합 검토	18
4. 문항별 검토	23
제4장 종합 논의	57
참고문헌	59

요 약

사회조사는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지적 기법을 적용하여 고령자 조사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과 검토사항들을 제언하여 고령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에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조사 중 가구주용 조사표를 대상으로, 세부 목적에 따라 조사원 보고와 조사원 초점집단면접, 인지면접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회조사 조사표는 연령별 비교 결과를 공표하는 문항들이 많아 개별 항목들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응답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나 어려워한 항목으로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고령층 대상 조사가 대부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 소요시간이 늘어난다는 점과 고령층 응답자들이 순위 선정 형태와 이동지시문 관련 문항 등을 어려워하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령 응답자들은 이해가 어렵거나 본인과 관계없다고 여기는 문항들(예, 고용 관련)에 무응답 경향을 보였다.

고령자 대상의 사회조사 조사표 설계와 구성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범위 조정과 문항 축소, 복잡한 형식의 문항 단순화 및 고령자에게 적합한 내용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고령 응답자에게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 사회조사, 조사표, 인지면접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통계청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만 13세 이상¹⁾ 상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데, 2008년부터 매년 5개 부문씩 총 10개 부문이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홀수 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짝수 년에는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에 관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 방법을 병행한다(통계청, 2019a).

사회조사는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시계열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는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측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다양한 경로²⁾의 검토를 통해 당해년도 조사표를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정례적인 검토 외에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과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과정³⁾도 진행되는데, 2017년에 5개 부문(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 조사표를 대상으로 한 연구⁴⁾와 2018년에 나머지 5개 분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⁵⁾들이 진행되어, 각 해당 조사표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늘어나는 고령층 조사응답자들을 위한 조사표 개발을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기법을 적용하여 고령자 조사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과 검토사항들을 제안하여, 고령 응답자에게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에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조사원 보고와 조사원 초점

1) 2011년 조사부터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응답대상이 확대되었다.

2) 사회조사를 위해 매년 관련 부처 및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3) 이 밖에 사회조사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통계개발원에서 조사항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7~2008년에는 조사주기 변경(부문별 3년에서 2년)에 따라 전체 부문의 기존 항목을 검토하고 필요한 항목을 개발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결과에 맞춰 2014년 조사 부문인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5개 부문 항목을 검토하고 신규항목을 개발하였다.

4) 『사회조사 조사표 개선 I: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 (박주언·박선희, 2017).

5) 『사회조사 조사표 개선 II: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박주언·박선희, 2018).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사회조사 진행 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원 집단면접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원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서는 전반적인 조사 응답과정을 이해하고 인지면접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초점집단면접의 결과를 인지면접 지침에 반영하여, 해당 항목들을 중심으로 인지면접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조사 조사표를 대상으로 하며, 응답자의 가구 내 지위와 연령에 따라 가구주용, 가구원용, 청소년용으로 구분되는 조사표 중 가구주용 조사표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언급되는 사회조사 조사표는 2019년 가구주용 조사표에 제한되는 내용임을 밝혀둔다.

2019년 사회조사 조사표는 이미 2018년 해당 부문(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해 진행된 연구결과⁶⁾를 바탕으로 수정되었으며, 현재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도자료와 KOSIS에 공표하는 문항들이 많아 개별 문항들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원 보고와 조사원 초점집단면접, 인지면접 결과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문항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2. 고령자 정의

본 연구대상이 고령자인 만큼 고령자의 범위를 규정한 뒤,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령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과 시대적 관점, 문화 등에 따라 고령에 대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 등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사전적 의미의 ‘고령’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사람이지만, 일정한 연령을 넘은 사람은 노인, 고령, 노령자, 중고령자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⁷⁾된다. 관련 용어도 노인 및 노령, 고령, 실버, 시니어 등이 유사하게 사용되며,⁸⁾ 이들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

국제적 차원의 고령자 규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65세

6) 『사회조사 조사표 개선 II: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박주언·박선희, 2018).

7) 『고령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김용탁, 2007).

8)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주영, 2013).

이상을 기준으로 고령화의 진척 정도를 파악하는 조작적 분류 기준일 뿐,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지는 않는다.⁹⁾ 국제노동기구(ILO)는 고령자 연령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노동여건과 관련한 노동통계자료를 모으고 국제경쟁, 실업과 불완전 고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¹⁰⁾ OECD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를 통해 고령 근로자 노동시장 정책 연구에 사용한 고령 근로자의 기준은 50세이며, 미국 인구센서스(US Census Bureau)는 55세를 고령자(the older) 인구 집단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노인(the elder)으로 간주하고 있다.¹¹⁾

국내 법률과 제도에서도 고령자의 기준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표 1> 참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법률이나 제도, 고령자 대상 조사에 각각의 기준이 존재하나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고령자 통계의 연령 기준(65세)을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인지면접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¹²⁾

<표 1> 각 분야 고령자 연령 기준

구분		용어 및 기준 연령
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령자: 55세 이상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 만60세 이상(특수직 55세 이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령자: 65세
	도로교통법	적성검사 특례: 65세 이상
조사·통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령층: 55~79세
	장애인패널고용조사	고령장애인: 60세
	노인실태조사	조사대상: 65세 이상
	고령자통계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기타	노인일자리사업(보건복지부)	공익활동·재능나눔활동: 65세 이상 (시장형: 60세 이상)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0,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발췌·수정.

9)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 법·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박문철, 2006).

10) 『고령자의 재취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의 고령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서명호, 2019)

11) 『노령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혜전, 2007)

12) 이와 같은 기준은 사회조사를 담당하는 사회통계기획과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제2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조사원 보고와 조사원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응답자 대상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원 보고와 조사원 초점집단면접, 인지면접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을 구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적용된 세 방법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원 보고는 현장조사 상황을 잘 반영하고, 많은 응답자로부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반면, 조사원 초점집단면접과 인지면접은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험실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초점집단면접은 해당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인지면접은 심층 질문을 통해 응답 오류 항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조사원 보고

조사원 보고(interviewer debriefing)는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원의 의견을 들어 조사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워딩이나 구조 등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Campanelli, Martin, Rothgeb, 1991). 조사원 보고는 조사원 그룹 보고와 평가양식을 통한 보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평가양식을 이용하여 조사원 보고를 진행하였다.

가. 평가양식

연구에 사용된 조사원 보고 평가양식은 응답자의 연령과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 소요시간, 응답자들이 어려웠던 조사항목이 있었는지,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그림 1]).

※ 이 페이지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1 응답자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세	2 조사표 작성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③ 인터넷 조사	3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분
4 응답자가 어려웠던 조사 항목이 있었습니까? ① 예 → 4-1 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5 번으로 이동		
4-1 있었다면 어려웠던 조사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5개를 써넣어주세요.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5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② 응답자가 조사에 집중하지 못해서 ③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④ 기타()		

[그림 1] 조사원 보고 평가 양식

나. 참가자

조사원 보고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실사과인 사회통계기획과의 협조를 얻어, 2019년 사회조사 조사표 마지막 장에 제시된 평가양식을 인쇄하고([그림 1]) 이를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조사원 보고 결과, 65세 이상 응답자들 중 남성은 1,128명, 여성은 978명이었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6.2%가 70대였으며, 80대(26%), 60대(25%), 90대(2.8%) 순이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조사원 면접방식(83%)이 가장 많았고, 자기 기입식(16.9%), 인터넷 조사(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원 보고 참가자 구성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				자료수집방법		
	남	여	60대	70대	80대	90대	조사원 면접식	자기 기입식	인터넷 조사
2,106 (100.0)	1,128 (53.6)	978 (46.4)	526 (25.0)	972 (46.2)	548 (26.0)	60 (2.8)	1,748 (83.0)	355 (16.9)	3 (0.1)

2.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은 흔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라고 불리는 면접기법으로, 해당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다(Morgan & Krueger, 1998).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토의를 통해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허용적이며 자유로운 집단환경에서 참가자들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피드백을 교환하면서 토의를 진행해 간다. 비교적 적은 수의 참가자로 진행되는 포커스 그룹이 가지는 편의적 성격으로 인해 더 큰 모집단에 대해 일반화가 유의하게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면접 참가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organ과 Krueger, 1993).

참가자 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최소 4명~최대 12명 정도로 구성된다. 12명 이상 그룹은 참가자에게 골고루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고, 4명 이하 그룹은 참가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놓을 기회는 많지만, 참가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

는 정보가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7~10명의 참가자와 한 명의 대화 조정자로 구성된다(Krueger & Casey, 2009).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사회조사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과 지식 등에 기반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조사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하 조사원 초점집단면접은 초점집단면접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가. 참가자

초점집단면접의 참가자는 2019년 사회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중, 담당 조사구에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수가 10가구 이상인 조사원과 2018~19년 2년에 걸쳐 사회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7명을 선정하여 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대부분 4회 이상 사회조사 경험이 있었으며, 사회조사 외의 조사경력이 10년 미만 3명, 10년 이상 4명이었다.

〈표 3〉 조사원 초점집단면접 참가자 구성

(단위: 명)

전체	성별	연령			교육정도			사회조사 참여경험			조사원 경력		
	여	40대	50대	60대	고졸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1회	4회	5회	10년 미만	10년	15 ~20년
7	7	2	4	1	2	4	1	1	2	4	3	2	2

나. 진행 과정

초점집단면접은 조사표 연구센터의 FGI룸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실시하였으며, 연구 질문에 기반을 둔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1단계인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참가자 모집, 토의장소, 진행구성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가자 모집 시 참가자들에게 연구주제와 목적을 사전에 안내하여, 면접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면접을 위한 면접지침(interview guide)을 작성하였다. 면접지침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질문을 사전에 설정하였다(<표 4> 참고).



[그림 2] 연구 절차

〈표 4〉 조사원 초점집단면접 면접지침

부문	조사항목(74개)
공지 및 소개	진행자 소개 및 토론의 목적
	진행소요시간 공지
	진행방법 및 당부사항
	- 토론내용 비밀보장, 중간 차단에 대한 양해, 토론 중 호칭사용법
전반적인 고령자 조사경험	(조사 상황) 자기 기입식과 면접조사의 비율
	(조사 경험) 면접조사를 진행한 최고령
	(어려움 여부 및 어려운 부분) 주제 및 내용, 응답보기 항목 및 형식
항목별 어려움 여부 및 이유	1. 개인 관련 사항(1번~7번)
	2. 일반복지 부분(8번~12번)
	3. 장애인 복지 부문(13번~16-1번)
	4. 노인 복지 부문(17번~23번)
	5. 사회참여 부문(24번~38-1번)
	6. 문화와 여가 부문(39번~47번)
	7. 소득과 소비 부문(48번~53번)
	8. 노동 부문(54번~64번)
	9. 가구 사항(65번~68번)
	10. 전반적인 사항
기타	(개선의견) 고령자 조사 시 고려사항, 고령자 조사표 별도 구성 시 고려사항, 응답자 제한 연령 기준
	(건의사항) 사회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및 개선 아이디어

3단계는 실제 면접이 진행되는 단계로, 면접에서 진행된 모든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면접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면접의 전 과정이 녹음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접 도입단계에서는 조사원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토의진행 기본 원칙 및 유의사항과 토의주제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질문은 면접지침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면접은 참가자들의 의견 교환 흐름에 맞춰 진행되었고, 사회자는 자신의 견해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감과 긍정적 관심으로 대화를 경청하며, 토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기록하였다. 내용 확장 및 구체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상세 질문을 추가하거나, 주어진 응답이 단순하거나 미진할 때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캐어묻기(probing) 작업도 진행하였다. 그 외에 특정 참가자가 발언을 주도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작업도 진행하였다. 토의가 끝나고 사회자는 토의 기록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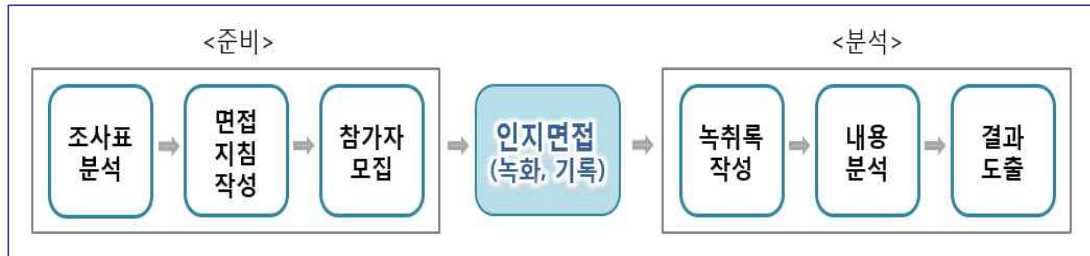
4단계에서는 면접 완료 후, 녹음된 면접 자료의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문서화하고, 전사된 내용과 면접 시 현장에서 기록된 면접 진행 내용, 연구자 간의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해 토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인지면접

인지면접은 응답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이해 및 해석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응답형성의 각 단계¹³⁾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진단한다(Hughes, 2004). 조사실무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오차의 원천을 응답자로부터 직접 발견함으로써 조사표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박영실 외, 2013).

인지면접은 사전 준비, 실시, 결과 분석의 세 단계로 추진하였다([그림 3]).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조사지침서 등을 검토하여 조사표를 분석하고, 면접지침을 작성한다. 면접지침은 인지적인 쟁점(issues)이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응답과정 파악을 위한 공통된 캐어묻기(probing) 질문을 목록으로 작성하게 된다.

13) 응답형성과정은 질문 이해(comprehension of the question), 정보 인출(retrieval from memory of relevant Information), 판단(judgement), 응답 보고(response process) 순으로 이루어진다(Tourangeau, Rips와 Rasinski, 2000).



[그림 3] 인지면접 적용 연구 절차: 준비, 실시, 분석

참가자는 통계청 홈페이지와 대전 내 노인복지관 공고 등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인지면접은 면접지침을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실시하고, 연구자는 면담 진행 시 면담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모든 면접 진행과정은 조사표 실험실 기기를 활용하여 녹화하고, 이후 작성된 녹취록과 조사표 응답내용, 면담내용 분석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가. 조사표 구성

인지면접에서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으로 구성된 2019년 사회조사 가구주용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가구원용과 청소년용 조사표¹⁴⁾는 가구주용에서 일부 조사항목을 제외한 것으로, 가구주용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이다.

<표 5>에 인지면접에서 사용된 사회조사 조사표의 조사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개인(7개), 복지(17개), 사회참여(17개), 문화와 여가(11개), 소득과 소비(6개), 노동(10개), 가구(4개)에 관한 총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 부문은 조사내용에 따라 일반 복지(5개), 장애인 복지(5개), 노인 복지(7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들 문항 중 29세 이하 연령만 응답하는 ‘55.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 가구원용 조사표는 가구주가 아닌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소비 부문의 일부 4개 항목과 가구 관련 사항과 같이 가구주용에 포함된 일부 항목을 제외한다. 청소년용은 만 13세~만 18세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주 항목과 생활 여건의 변화,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장례 방법 등의 항목이 제외된다.

〈표 5〉 2019년 사회조사 조사문항(가구주용)

부문		조사항목(72개)	비고
개인 (7개)		1. 성별, 2. 생년월일, 3. 가구주와의 관계, 4. 교육 정도, 5. 혼인 상태 6. 주관적 만족감, 7. 성취에 대한 만족도	
복지 (17개)	일반 (5개)	8. 생활 여건의 변화, 9.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0.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11.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12. 선호하는 장례 방법	
	장애인 (5개)	13. 장애인 유대관계 여부 및 대상, 14.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 15. 장애인 관련 시설, 16.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성 16-1. 우선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 (7개)	17. 본인의 노후 준비 방법 18.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19.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20. 생활비 마련 방법, 21. 자녀 유무 22.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23.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60세 이상
사회참여 (17개)		24.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25. 신뢰 26. 사회적 관계망, 26-1. 하루 평균 교류 정도, 27. 단체 참여 28.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 29. 기부 내용, 30. 기부 희망 분야 31. 기부 문화 확산, 32. 향후 기부 의사, 33. 유산 기부 의사 34. 자원봉사 활동, 35.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36. 향후 자원봉사 활동 의사 37. 계층 의식, 38.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38-1.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문화와 여가 (11개)		39.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40. 독서 4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42. 레저시설 이용 횟수 43. 국내 관광 여행 횟수, 44. 해외 여행 경험 및 횟수 45. 여가 활용, 45-1. 여가 활동 함께 하는 사람 46. 여가 활용 만족도, 46-1. 불만족 이유 4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소득과 소비 (6개)		48. 주관적 소득수준, 49. 소득과 부채의 변화 50.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51. 건축소비 지출항목 52. 소득 만족도, 53. 소비생활 만족도	
노동 (10개)		54. 직업 선택 요인 55.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제외

부문	조사항목(72개)	비고
	56.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57. 여성 취업 장애 요인 58.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59.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60. 고용 안정성, 61. 산업, 62. 직업, 63. 종사상의 지위, 64. 근로 여건 만족도	
가구 (4개)	65. 거처의 종류, 66. 점유형태 67.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 활동 상태, 68. 가구소득	

나. 참가자

인지면접 참가자는 총 13명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통계청 홈페이지, 생활정보신문, 노인복지관에 공고하여 모집하였다. 인지면접 참가 공고 시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등의 질문을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7명, 연령별로는 60대 6명, 70대 4명, 80대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고졸 이하 6명, 전문대졸 2명, 대졸 이상이 5명이었는데, 고졸 이하는 초졸과 중퇴, 중졸을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9명)이 가장 많고, 이혼 2명, 별거 및 미혼이 각 1명이었다. 이들 중 취업자는 7명, 나머지 6명은 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항으로 사회조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거나 응답해본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없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참가자 특성은 <표 6>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인지면접 참가자 구성

(단위: 명)

전체	성별		연령			교육정도 ¹⁾			혼인상태				취업상태	
	남	여	60대	70대	80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유배우자	이혼	별거	미혼	취업	비취업
13	6	7	6	4	3	6	2	5	9	2	1	1	7	6

주: 1) 고졸 이하는 초졸 1명, 중학교 중퇴 1명 및 졸업 1명, 고졸 3명.

〈표 7〉 인지면접 참가자 세부 특성

번호	성별	연령(세)	교육정도 ²⁾		혼인상태	취업상태
1	남	72	중학교	졸업	유배우자	비취업
2	여	73	초등학교	졸업	이혼	비취업
3	남	67	대학교	졸업	유배우자	취업
4	남	67	대학교	졸업	유배우자	취업
5	여	66	대학교	졸업	유배우자	취업
6	여	68	전문대학교	졸업	유배우자	취업
7	남	80	중학교	중퇴	별거	취업
8	남	85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자	비취업
9	여	65	대학원 석사	졸업	이혼	취업
10	남	73	전문대학교	졸업	유배우자	취업
11	남	71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자	비취업
12	여	69	대학교	졸업	미혼	비취업
13	여	82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자	비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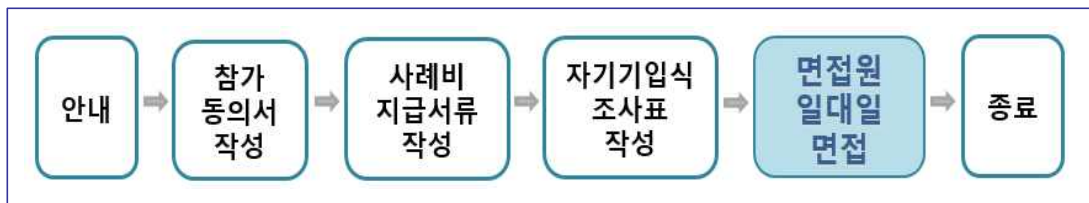
주: 2) 교육정도는 최고 학력 기준.

다. 진행과정

인지면접은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통계개발원 내 조사표실험실 Lab1과 Lab3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가 조사표 실험실에 도착하면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참가동의서¹⁵⁾와 사례비 지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조사표 작성을 마친 후 연구자와의 일대일 면담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사전에 마련한 면접지침의 캐어묻기(probing) 질문을 토대로 필요 시 탐색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조사표 각 항목의 응답과정을 상세히 묻고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그림 4]). 참가자가 실험실에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연구자와 일대일로 면담하는 전 과정은 참가자의

15) 참가동의서에는 모든 진행과정이 녹화되고, 제공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되고, 진행과정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과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의하에 모두 녹화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지면접 후 면담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고, 면담내용을 분석하여 응답과정 및 응답선택 이유 등을 확인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 및 원인을 탐색하였다.



[그림 4] 인지면접 진행과정

라. 면접지침

면접지침은 조사문항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특히 인지적인 쟁점이 예상되는 문항에 대해 참가자들의 응답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질문 목록으로,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캐어문기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조사는 2018년 사회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를 통해 모든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진행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총 73개 사회조사(가구주 기준) 문항들 중 2019년 조사 시 파악된 기초자료(조사원 보고)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통해 확인한 고령자들이 어려워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표 8> 참고). 여기에 인지면접이 진행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함께 진행되었다. 주로 응답에 도달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질문 의도와 용어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탐색함으로써 오류 발생 가능성과 응답 시 어려움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인지면접 면접지침(조사문항별 캐어문기 질문내용)

부문	조사문항	캐어문기 질문내용
공통	-	응답 어렵거나 부담스러웠던 항목 및 이유
개인	2.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준 응답 여부
	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및 가구 구성원 현황
	5. 혼인상태	혼인신고 문항 느낌
	6. 주관적 만족감	응답 이유 - 응답문항 구분 기준

부문	조사문항	케어문기 질문내용
	7. 성취에 대한 만족도	응답 이유 - 응답문항 구분 기준
일반 복지	8. 생활 여건의 변화	각 분야별 응답 이유 - 개념 이해상태
	9.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사회보험료 납부 현황 및 납부액 인지도
	10.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응답 이유 - 순위 선택 기준
	11.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응답 이유 - 순위 선택 기준
장애인 복지	13. 장애인과 관계 및 대상	응답 이유 - 순위 선택 기준
	16-1. 확대할 장애인 복지사업	응답 이유 - 응답항목 구분 및 순위 선택 기준
노인 복지	17. 본인의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자) 준비 정도, 주/부 수입 구분 기준 (노후 미준비자) '앞으로' 예상 시점
60세 이상	20. 생활비 마련 방법	생활비 마련 방법 구체화
	22. 자녀동거 여부	(동거) 현재 동거 이유 및 순위기준 파악 (비동거) 현재 비동거 이유 및 순위기준 파악
	23. 향후 자녀 동거 의향	(비동거) 응답항목 이해상태
사회 참여 사회 참여	26. 사회적 관계망	'집안일' 개념 이해상태
	26-1. 하루 평균 교류 정도	교류 대상 및 기준(하루) 확인
	27. 단체 참여	단체 활동내용 구체화, 온라인 단체 활동 여부
	28. 기부 여부 및 미기부 이유	기부 누락 및 제외사항 포함 여부
	29. 기부 내용	기부 주기 기준(지난 1년) 확인
	30. 기부 희망 분야	순위기준 파악
	31. 기부문화 확산 요건	순위기준 파악
	34.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활동 내용 확인 - 분야 선택이유, 기준(지난 1년) 확인
	35. 전문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활동 내용 확인 - 분야 선택이유, 기준(지난 1년) 확인
	38.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응답 이유 - 질문 이해상태
	38-1.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응답 이유 - 질문 이해상태
문화와 여가	39.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신문 읽기 현황 - 누락 여부
	40. 독서	독서 현황 - 종교 경전 포함 등 확인
	4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이용 여부
	42. 레저시설 이용 횟수	레저시설 이용 현황 구체화 - 누락 여부

부문	조사문항	케어문기 질문내용
	43. 국내 관광 여행 횟수	숙박여행 1회 평균 일수 계산과정
	45. 여가 활용	순위 선택 기준, 주말/주중 차이 여부
	45-1. 여가 활동 함께 하는 사람	함께한 여가 활동 내용, 주말/주중 차이 여부
소득과 소비	49. 소득과 부채의 변화	응답 이유 - ‘동일하다’ 이해상태
	51. 건축소비 지출항목	응답 이유
	53. 소비생활 만족도	응답 이유 - 과소비로 인한 불만족 가능성 파악
노동	54. 직업선택 요인	순위기준 파악
	56.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응답이유 - 응답형성과정 파악(개인 경험 기반 응답 여부 등)
	57. 여성취업 장애 요인	응답이유 - 응답형성과정 파악(개인 경험 기반 응답 여부 등), 순위 선택 기준
	58.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구체화
	59.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응답 이유 - ‘가정생활’ 개념 이해상태
	64. 근로 여건 만족도	응답 이유 - ‘모르겠다’, ‘해당없다’ 응답이유 파악
기타	고령자용 조사표 반영사항 및 대상연령	
	이전에 「사회조사」 응답 경험	

4.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원 보고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표 작성시간과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원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응답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용어, 문항 유형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항들을 탐색하여 인지면접에 적용하고, 인지면접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지점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원 보고와 초점집단면접, 인지면접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응답오류 또는 오류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령층 대상의 조사표 개발 시 검토사항과 유의사항을 도출하였다.

제3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원 보고와 초점집단면접, 인지면접을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실제 사회조사에서 고령층 대상 조사가 대부분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고령 응답자들에게 동일 문항이나 응답보기에 대한 반복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접에 참여한 조사원들이 조사 제한 연령 설정과 고령자 대상의 별도 조사표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고령층 응답자들이 어려워하는 항목 중 다수가 순위 선정 문항으로, 이에 대한 응답 확보가 어려움을 공유하고, 고령자와 관계없는 질문(취업 관련 문항)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거부감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조사원 보고와 인지면접에서는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과 고령층 응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을 알 수 있었다. 고령층 응답자들은 특히 순위 선정 형태와 이동지시문 관련 문항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순위 선정 형태에서는 일부 순위까지만 응답하는 오류가 다수 있었으며, 응답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 응답하는 오류들도 발생하였다. 이동지시문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여 오류 발생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 응답자들은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내용이 본인과 관계없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예, 고용 관련 문항 등)에 거부감이 존재하며, 인지면접에서는 해당 문항에 대한 무응답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

1. 평균 응답연령 및 조사표 작성 방법

조사원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사회조사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연령은 75세였으며, 가장 높은 연령의 응답자는 96세였다. 연령이 많은 응답자들인 만큼 대부분 응답자들이 조사원 면접방식(83%)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표 9> 참고).

조사원 초점집단면접에서 제시된 의견들도 조사원 보고의 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표 9> 아래 집단면접의 조사원 사례 참고). 조사원들은 고령자일수록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에 대한 여러 번의 반복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때, 제대로 된 응답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었다.

인지면접은 만 65세 이상을 연구 참가자로 선정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응답연령은 72세였으며, 가장 낮은 연령은 65세, 가장 높은 연령은 85세

였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7, 5, 6)

조사원 7 - 거의 면접으로 해요. 기입식으로 해 달라고 맡기면 안 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맡기면 몇 개만 해 놓고 안 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빈 용지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아서 조사를 하고 오는 게 차라리 편해요.

조사원 5 - 무조건 면접으로 하죠. 어르신들은 75세 이상 되면 면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조사원 6 - 연세 드신 분들, 귀도 어둡고 그래서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번 질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 질문해야 하는 게 그게 좀 어려워요.

<표 9> 평균 응답연령 및 조사표 작성 방법

(단위: 명, %)

	조사원 보고	면접식	자기기입식	인터넷조사	인지면접
평균연령	75세	-	-	-	72세
전체 참여인원	2,106	1748(83.0)	355(16.9)	3(0.1)	13
60대	526	361(68.6)	164(31.2)	1(0.2)	6
70대	972	813(83.6)	157(16.2)	2(0.2)	4
80대	548	514(93.8)	34(6.2)	-	3
90대	60	60(100)	-	-	-

주: ()는 각 연령대별 전체에 대한 비율.

2.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을 나타내는 <표 10>을 살펴보면, 조사현장에서 조사표 작성에 걸린 소요시간(조사원 면접식 기준)은 평균 37분으로, 최단 소요시간은 10분이었고, 최장 소요시간은 120분이었다. 연령별 평균 소요시간은 60대 34분, 70대 36분, 80대 39분, 90대 40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사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¹⁶⁾ 이는 사회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조사원 면접식, 자기기입식, 인터넷 조사)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인지면접에서 조사표 소요시간은 평균 47분으로, 최소 소요시간은 26분이었다.¹⁷⁾ 연령별로는 60대 44분, 70대 48분, 80대 54분으로, 조사원 보고에서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

16) 조사원 보고의 연령별 자기기입식 최소/최대 소요시간은 60대 20분/100분, 70대 20분/100분, 80대 25분/60분이었고, 인터넷 조사의 연령별 최소/최대 소요시간은 60대 15분/100분, 70대 20분/100분

17) 인지면접 진행을 위해 조사표 작성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기준 시간을 넘을 경우 면접자가 면접을 진행하며 미작성된 조사표 작성까지 함께 진행하였다. 따라서 최장 소요시간은 측정불가(60+α분)이며, 제시된 평균값은 1시간을 넘겨 조사표를 작성한 70대 1명, 80대 1명은 제외된 값이다

수록 소요시간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조사원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연령별 조사표 작성소요시간에 대해 유사한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조사원들은 개인의 지적 능력과 신체적 상태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조사 제한 연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85~90세 이상은 질문 이해가 어렵고, 청력 문제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이야기 했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1, 4)

조사원 1 -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90세 정도면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이해 능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든 게 다 힘들죠.

조사원 4 - 85세, 90세는 조사가 너무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조사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요. 어르신들도 85세 이상은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표 10〉조사표 작성 평균 및 최소·최대 소요시간

(단위: 명, 분)

	조사원 보고 (평균 소요시간)					인지면접		
	조사원 면접식	최소 소요시간	최대 소요시간	자기 기입식	인터넷 조사	평균 소요시간	최소 소요시간	최대 소요시간
전체	37	10	120	37	28	47	26	측정불가
60대	34	15	100	35	20	44	26	55
70대	36	10	120	37	33	48	40	측정불가
80대	39	20	120	40	-	54	53	측정불가
90대	40	20	70	-	-	-	-	-

3. 종합 검토

가. 어려운 문항 검토

조사원 보고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6%(551/2,106건)가 어려운 조사문항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방법별로는 조사원 면접 방식 응답자 중 28.7%(502명), 자기 기입식 방법 응답자 중 13.8%(49명)가 어려운 문항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표 11〉어려위한 문항 존재 여부

(단위: 명, %)

	총합계	조사원 면접식	자기 기입식	인터넷
어려위한 문항 있음	551(26.2)	502(28.7)	49(13.8)	-
어려위한 문항 없음	1,555(73.8)	1,246(71.3)	306(86.2)	3
소 계	2,106(100.0)	1,748(100.0)	355(100.0)	3

나. 문항 유형별 비교

조사원 보고 결과에서 어려웠다고 보고된 문항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순위 선정 문항과 이동지시문 관련 문항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표 12>).

<표 12> 순위 선택형 문항과 이동지시문 문항

응답형식	관련 문항
순위 선정	총 13문항(문 10, 11, 13, 16-1, 22, 30, 31, 45, 45-1, 47, 51, 54, 57)
이동지시문	총 6문항(문 16(16-1), 21(22, 24), 28(29, 31), 46(46-1), 58(59, 65), 63(64, 65))

순위 선정 문항의 경우, 어려움을 느낀 상위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이같은 형태였고, 특히 100회 이상 어려움이 보고된 7개 문항 중에서 5개 문항이 순위 선정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표 13> 응답자가 어려워하는 조사문항(상위 10개, 조사원 보고 결과)

순위	문항	내용	형태 및 특징	응답 빈도
1	31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요건	순위 선택, 이동지시문 관련	229
2	38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5점 리커트	174
3	11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순위 선택, 항목 8개	153
4	54	직업선택 요인	순위 선택, 항목 9개	146
5	10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순위 선택, 항목 9개	144
6	57	여성취업 장애 요인	순위 선택, 항목 8개	130
7	38-1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5점 리커트	100
8	45	여가 활용	순위 선택, 주말/주중 차이 여부	65
9	16-1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순위 선택, 이동지시문 관련	57
10	4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순위 선택, 항목 11개	56
	56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항목 8개(상위 3, 하위 5)	56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순위 선정 문항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원들은 응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항 중 다수가 순위 선정 형태로, 이에 대한 응답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1, 2, 4, 7)

조사원 1 - 사회조사 조사표를 보면 단답형이 아니에요. 질문하고 그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모든 보기를 듣고 3개나 선택해야 답이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조사원 2 - 질문을 읽어 드리면 하나 대답했으면 됐지, 뭘 자꾸 하냐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알아서 적으라고 하시고 답을 안 하세요.

조사원 4 - 우리가 묻기 나름이에요. 크게 1순위라는 개념이 없어요. 먼저 묻는 게 1순위고, 두 번째 하는 게 2순위가 되고.

조사원 7 -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크게 해당 없는 질문에 1, 2, 3순위를 적으라고 하면 없는 걸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냥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인지면접에서도 순위 선정 문항과 관련된 오류와 무응답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3문항의 순위 선정 문항 중 일부 순위(1순위/1, 2순위)까지만 응답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와 함께 이동지시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미비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인지면접 참가자 중 일부는 이동지시문이 있는 문항은 무응답하고, 지시된 번호의 문항에만 응답하기도 했다([그림 5]). 대부분 면접으로 진행되는 사회조사 특성상 조사원 보고나 초점집단면접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된 인지면접에서 이동지시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어려움을 할 수 있었다.

(인지면접_참가자 2)

면접원 - 조사표 작성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참가자 - 읽어보고 하는 데 아까 이동을 하라, 어디로. 그런 거는 몰라, 어려워.

장애인 복지사업	
16 귀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속 확대해야 한다 ②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 ③ 충분하다 ④ 잘 모르겠다	16-1 향후 정부에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연금·수당 지원 서비스 2. 보육·교육 지원 서비스 3.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 4. 생활 지원 서비스 5. 일자리 및 자립 자금 지원 서비스 6. 각종 요금 할인·감면 및 세제 혜택 서비스 7. 문화·예술 행사 참여 지원 서비스 8.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9. 기타()

주: 면접 시 변경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

[그림 5] 이동지시문 응답 오류(참가자 11)

다. 내용 적합성

초점집단면접에서 조사원들은 고령자와 관계없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응답자들은 내용상 본인들과 관련 없다고 여기는 항목들, 예를 들어 직업선택 항목(문 54)이나 여성 취업 관련 문항(문 56, 57), 기부경험 없는 경우 기부문화 관련 문항들(문 30, 31), 고용 관련 문항(문 60~64) 등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표 13>에 제시된 조사원 보고 결과(응답자가 어려워 하는 조사문항)와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고령자와 관계없는 질문이나 유사한 문항들은 축소하여 고령자들이 응답할 전체 문항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5, 2, 1)

조사원 5 - 어르신들은 시니어 일자리 이런 거 하시는데, 하루 3~4시간씩 짧으면 3~4달, 길면 5~6달 일하시는데,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근로만족도 이런 거 본인은 해당 없다고 하시고.

조사원 2 - 저는 일단 문항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응대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요.

조사원 1 - 유사 항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질문이 분명히 다르지만,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다 같은 걸로 느끼는 거죠.

인지면접에서는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응답자가 직접 언급한 문항들이 있었다. 이들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응답자가 어려웠던 상위 10개 문항들 중 6개 문항이 속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표 14> 참고).

이 외에도 고령층 응답자들은 문항 이해가 어렵거나 본인에게 비해당되는 문항으로 생각하는 경우 무응답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4. 문항별 검토』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4>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인지면접)

연번	문항 번호	내용	응답자가 어려웠던 문항 (<표 13> 해당 여부 및 순위)	
1	문 8	생활여건의 변화_항목 3.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		
2	문 9	사회보험료 부담		
3	문 16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4	문 16-1	향후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9위(문16-1)
5	문 31	기부문화 확산	○	1위
6	문 34	자원봉사 활동		
7	문38	계층이동	○	2위

연번	문항 번호	내용	응답자가 어려웠던 문항 (<표 13>) 해당 여부 및 순위	
8	문 54	직업선택 요인	○	4위(문54)
9	문 56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	10위(문56)
10	문 57	여성 취업 장애 요인	○	6위(문57)
11	문 59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12~15	문 60~64	고용 관련 문항		

라. 연령별 비교

응답자들이 어려웠던 문항을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상위 10개 문항들이 대체로 일치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가 어려워하는 문항으로 선정된 문항들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설명을 추가하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재질문하면서 응답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질문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연령별로 어려워하는 문항들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표 15> 응답자가 어려워하는 조사문항 연령별 비교(상위 10개)

순위	전 연령		60대	70대	80대	90대
	문항번호	내용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1	31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요건	31	31	31	10
2	38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11	38	38	31
3	11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57	10	11	38
4	54	직업선택 요인	54	11	54	11
5	10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38	54	10	54
6	57	여성취업 장애 요인	51	57	57	57
7	38-1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8	38-1	38-1	27
8	45	여가 활용	64	47	16	45
9	16-1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38-1	45	45	16
10	4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10	56	16-1	9

4. 문항별 검토

가. 기본항목

1) 생년월일

[그림 6] 생년월일 응답 오류(참가자 2)

대부분 오류 없이 응답이 가능하나, 기입형식을 어려워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림 6], 참가자 2).

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는 본인이 가구주임에도, 배우자를 가구주로 생각하거나(참가자 1), 배우자 유무를 질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응답(참가자 13)하기도 했다.

이밖에 응답지로 제시된 가구 구성원 보기에 해당하는 가구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입하기도 했다([그림 7], 참가자 2, 8).

[그림 7] 가구주와 관계 응답 오류(참가자 2)

3) 혼인상태

혼인신고 여부 문항에 대해 거부감은 없으나, 생소하게 느끼거나 의아스럽게 여기는 사례(참가자 5, 7)가 있었고, 현재 이혼/별거 상태인데, 배우자 있음을 함께 응답([그림 8], 참가자 2, 7)하였다.

혼인 상태

5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③ 사 별 ④ 이 혼 ⑤ 별 거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주: 면접 시 변경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

[그림 8] 혼인상태 응답 오류(참가자 7)

4) 문 6 주관적 만족감, 7 성취에 대한 만족도

문 6은 경제적 측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행복도)를 조사하고, 문 7은 개인적인 부, 사회적 지위, 업적 등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다([그림 9]). 응답자들 중 두 문항을 동일한 문항으로 이해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같은 응답하는 사례도 있었다(6/13명, 참가자 1, 3, 4, 5, 6, 8).

주관적 만족감

6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성취에 대한 만족도

7 귀하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그림 9] 문 6, 7 주관적 만족감, 성취에 대한 만족도

나. 일반 복지 부문

1) 문 8 생활 여건의 변화

문 8은 우리사회의 생활여건을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건생활 향유 여건, 전반적인 생활 여건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대해 2년 전과 비교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변화 정도를 조사한다([그림 10]).

문 8은 조사원 보고에서 응답자가 어려워한 문항 12위로, 「3.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다양한 이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항목에 대해 지침으로 제시된 우리 ‘사회’가 아닌, ‘본인의 경제적인 이유’를 기준으로 응답하거나 본인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응답 기준을 응답자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라고 하거나(4/13명, 참가자 3, 4, 9, 11), 해당 항목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 고령인 본인에게 해당 없다고 응답하였다(2/13명, 참가자 2, 10).

생활 여건의 변화					
8 2년 전(2017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생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변화 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1. 보건 의료 서비스 (의료 기관 이용할 때의 서비스 질)					
2.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제도·사회 복지 서비스 ·아동 수당·실업 급여 등)					
3.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					
4. 전반적인 생활 여건					

[그림 10] 문 8 생활 여건의 변화

(인지면접_참가자 2)

면접원 - 「1. 보건 의료」, 「2. 사회보장」, 「4. 전반적인 생활여건」은 「⑤ 매우 나빠졌다」, 「3.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은 「④ 약간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3.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대답하신 거예요?

참가자 - 문화·여가생활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면접원 - 선생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④ 약간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참가자 - 그렇지.

면접원 - 사회적으로 「3.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참가자 - 전부 다 나빠졌어. 다른 것들이랑 똑같아.

문 8에 제시된 4가지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응답 기준을 달리하여 「1. 보건의료서비스」, 「2. 사회보장제도」, 「3. 문화·여가 생활향유여건」은 ‘사회적 상황’을 기준으로, 「4. 전반적인 생활 여건」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참가자 7).

〈표 16〉 인지면접: 문8 생활 여건의 변화(3. 문화·여가생활 향유) 응답 오류

참가자	오류 유형
참가자 3, 4, 9, 11,	‘사회’의 여건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
참가자 2, 10	고령인 본인에게 해당 없다고 생각하여 ‘약간 나빠졌다’ 혹은 무응답
참가자 7	항목별 기준을 다르게 적용(‘사회’/응답자 ‘개인’)하여 응답

비교시점의 기준도 다양했다. 질문에 제시된 기준 시점(2년 전)으로 응답한 사례는 1명이었으며(참가자 12), 그 외 50년 전부터 최근 6개월 이내로 기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7).

항목별로 기준 시점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참가자 13), 해당 응답자는 「1. 보건의료서비스」 기준은 10년 전, 「3. 문화·여가 생활향유여건」은 20년 전을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표 17〉 인지면접: 문8 생활 여건의 변화(3. 문화·여가생활 향유) 응답 기준

참가자	응답 기준	참가자	응답 기준
참가자 1	유년시절(50년 전)	참가자 8	10년 전
참가자 2	5년 전	참가자 9	3년 전
참가자 3	유년시절	참가자 10	10년 전
참가자 4	1년 전	참가자 11	10년 전
참가자 5	유년시절(50년 전)	참가자 12	2년 전
참가자 6	6개월 전	참가자 13	10년 전, 20년 전
참가자 7	특정하기 어렵지만, 2년 전은 아님		

2) 문 9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문 9는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조사한다([그림 11]).

사회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9. 귀하는 매월 사회 보험료(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를 납부하고 있으십니까?
 납부한다면 각각의 사회 보험료가 귀하의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득에서 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이 없고 다른 사람이 사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는 「② 납부하지 않는다」로 응답합니다.
 ※ 소득이 없는 부인의 국민연금을 자영업자인 남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 남편은 「① 납부한다」, 부인은 「② 납부하지 않는다」
 ※ 남편과 부인이 모두 직장인이어서 각각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남편과 부인 모두 「① 납부한다」

1. 건강 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 보험
① 납부한다	① 납부한다	① 납부한다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약간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약간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① 매우 부담된다 ② 약간 부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납부하지 않는다	② 납부하지 않는다	② 납부하지 않는다

[그림 11] 문 9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사회보험료 납부는 본인의 소득에서 실제 지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이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통계청, 2019a).¹⁸⁾

〈표 18〉 문 9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응답 및 질문내용

참가자 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	대납	납부	수령	납부	응답변경
1	납부 o	배우자 대납 (응답오류)	납부 X	o	납부 X	납부 → 미납부
2	납부 X	자녀 대납 (응답오류)	납부 X	o	납부 X	X
3	납부 o	본인 납부	납부 X	X	납부 X	X
4	납부 X	자녀 대납	납부 X	o	납부 X	X
5	납부 X	자녀 대납	납부 X	o	납부 o	미납부 → 납부
6	납부 o	본인 납부	납부 X	o	납부 X	X
7	납부 X	자녀 대납 (응답오류)	납부 X	o	납부 X	X
8	납부 X	기초생활수급	납부 X	X	납부 X	X
9	납부 X	자녀 대납	납부 X	X	납부 X	X

18)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인의 국민연금을 자영업자 남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남편은 「① 납부한다」, 부인은 「② 납부하지 않는다」에 해당한다.

참가자 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	대납	납부	수령	납부	응답변경
10	납부 X	배우자 대납 (응답오류)	납부 X	o	납부 X	X
11	납부 X	자녀 대납 (응답오류)	납부 X	o	납부 X	X
12	납부 o	본인 납부	납부 X	o	납부 X	X
13	납부 X	기초생활수급	납부 X	X	납부 X	X

가) 건강보험

면담 결과,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배우자, 자녀)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데 본인이 납부한다고 하거나, 무응답하는 오류를 확인하였다(5/13명, 참가자 1, 2, 7, 10, 11).

나) 국민연금

인지면접 참가자인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2019년 현재 수급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참가자는 없었다. 이들 중 국민연금 수급 중인 응답자는 9명, 기초연금¹⁹⁾ 수급 중인 응답자는 2명이었다.

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취업 중인 응답자가 적어 납부 중인 사례가 적었으며(1명), 납부 중으로 응답한 경우도 본인의 고용보험 납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참가자 5).

(인지면접_참가자 5)

참가자 - 시니어 사업인가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영화관에서 일주일에 3번, 하루 5시간씩 하는데. 아마 고용보험은 거기서 들어가는 거 같지. 아마?

면접원 - 아직 월급을 안 받으셔서 고용보험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참가자 - 반 달치 저번 달에 받았는데... 이 보험료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네. 보험료가 나간다고 얘기를 들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고령자 대상의 조사표 개발 시 이 같은 고령 응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연령층에 따른 사회보험 납부여부 항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9) <참고> 노령연금, 기초연금(출처: 보건복지부 답변)

- 노령연금은 국민 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납부 후, 만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
- 기초연금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일정 기준*이 되면 제공,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 아님(* 노령 연령 중 생활이 어려운 계층)

3) 문 10~1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복지서비스

문 10과 문 11은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공공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두 문항 모두 응답자들이 어려워하는 순위 선정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원 보고에서 문 10과 11은 응답자가 어려웠던 문항 각각 5위와 3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초점집단면접에서는 고령층 응답자들이 항목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5, 7)

조사원 5 - 10번, 11번이 요즘에 나오는 서비스예요,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보기에 나온 항목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해력이 떨어져요.

조사원 7 -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라고 하면 “필 해 줄 건데?” 하고 물어 봐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는 없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 옛날 분들이라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사원 5 - 네. 이걸 질문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순위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2], [그림 13] 처럼 2순위에 체크 표시(✓)로 응답하거나(참가자 2), 1, 2, 3 순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무응답하기도 했다(참가자 13). 그 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물음표(?)를 표시하고 무응답하는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8, 12).

주: 면접 시 변경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

[그림 12] 문 10 응답오류_2순위에 체크 (참가자 2)

주: 면접 시 변경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

[그림 13] 문 11 응답오류_ '?' 표시 후 무응답(참가자 8)

(인지면접_참가자 8)

면접원 - 11번은 응답을 안 하시고, 물음표를 해놓으셨네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가자 - 제가 소득도 없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 관련도 해당 안되고. 내가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면접원 - 해당없는 문항이어서 응답을 안하신건가요?

참가자 - 네.

응답기준을 살펴보면, 응답자에 따라 두 문항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나(사회적 기준/본인 기준, <표 19> 참고), 응답자 한 명이 두 문항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참석자 5, 7, 10, 11).

<표 19> 문 10, 1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응답 기준

	사회적 기준	개인 기준
문 10	8명 (참가자 1, 2, 3, 7, 9, 10, 11, 12)	2명 (참가자 5, 4)
문 11	6명 (참가자 1, 2, 3, 5, 9, 12)	4명 (참가자 4, 7, 10, 11)

다. 장애인 복지 부문

1) 문 13 장애인과의 유대관계 여부 및 대상

문 13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3순위까지 선택하는 문항으로, 응답 대상자(5명) 모두가 인지면접 시 일부 순위(1순위 또는 1, 2순위)까지만 응답하였다(참가자 1, 2, 11, 12, 13). 이밖에 인지면접 응답 단계에서 면접원에게 2, 3순위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응답해야 하는지 질문하여 응답을 명확히 한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12).

(인지면접_참가자 12)

참가자 - 동호회에만 아는 장애인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럼 2순위, 3순위는 해당이 없으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또한 순위 선정 문항의 응답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1순위에 체크표시(✓)를 하거나(참가자 2), 「① 있다」의 모든 순위에 응답함과 동시에 「② 없다」를 함께 기입하기도 했다([그림 14], 참가자 5). 이 외에도 순위를 기입하지 않고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점만 찍는 오류 사례도 있었다([그림 15], 참가자 13). 아래 그림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변경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애인과의 유대관계 여부 및 대상

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 5. 15. ~ 2019. 5. 14.)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장애인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1순위 2순위 3순위

1. 가족 2. 친척 3. 직장 동료 4. 친구, 이웃
5. 동호회(동아리, 모임 등) 회원 6. 기타()

[그림 14] 문 13 응답오류_ '있다'의 순위와 '없다' 함께 기입(참가자 5)

장애인과의 유대관계 여부 및 대상

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 5. 15. ~ 2019. 5. 14.)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장애인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V ① 있다 ② 없다

1순위 2순위 3순위

1. 가족 2. 친척 3. 직장 동료 4. 친구, 이웃
5. 동호회(동아리, 모임 등) 회원 6. 기타()

[그림 15] 문 13 응답오류_순위 기입없이 해당 항목에 점만 찍음(참가자 13)

이 밖에도 순위 선정 기준 역시 응답자들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 혈연 여부에 따라(참가자 1), 혹은 평소 연락하는 빈도에 따라(참가자 11) 순위 선택이 달라졌다.

(인지면접_참가자 1)

면접원 - 왜 친척분을 1순위로 응답하셨어요?

참가자 - 친척이니까. 그래도 피를 나눈 사람이니까. 그 다음이 직장동료고.

(인지면접_참가자 11)

면접원 - 여기 1순위에 지금 친구를 쓰시고, 형님은 2순위로 써주셨는데, 왜 그렇게 써주셨을까요?

참가자 - 형님하고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이 친구는 아프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면접원 - 연락을 자주 하십니까?

참가자 - 네.

2) 문 16, 16-1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및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문 16과 16-1은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개인의 주관적 태도를 질문한다([그림 16]). 이 문항들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순위 선정과 이동지시문 유형이 함께 있는 문항이어서, 조사원 보고에서도 응답자가 어려웠던 문항 13위(문 16)와 9위(문 16-1)를 차지하기도 했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3)

조사원 - 16-1번 보기가 많아서 읽어 드리는 동안 질문을 잊어버리세요.

사회자 - 보기가 많은 거 외에, 어려워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조사원 - 복지사업이 그냥 확대되면 확대되고, 줄이면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늘려야 될지 생각하시는 게 어려우신 거 같더라고요.

사회자 - 각각의 사업을 생각하시는 게 어렵다는 건가요?

조사원 - 네.

인지면접에서는 이동지시문에 대한 오류 사례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동지시문이 있는 선행 질문, 즉 문 16에 제시된 이동지시문(‘→16-1 항목으로’)을 보고 문 16은 무응답한 뒤 문 16-1번에만 응답하기도 하고(참가자 3, 9, 11, 13), 반대로 본인에게 해당없는 항목이어서 문 16은 무응답, 문 16-1은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응답하기도 하였다(참가자 7).

장애인 복지사업	
16 귀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속 확대해야 한다 ②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 ③ 충분하다 ④ 잘 모르겠다 → 16-1 항목으로 → 17 항목으로	16-1 향후 정부에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현금·수당 지원 서비스 2. 보육·교육 지원 서비스 3. 의료 및 재활 지원 서비스 4. 생활 지원 서비스 5. 일자리 및 자립 자금 지원 서비스 6. 각종 요금 할인·감면 및 세제 혜택 서비스 7. 문화·예술 행사 참여 지원 서비스 8.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9. 기타()

[그림 16] 문 16, 16-1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및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인지면접_참가자 7)

면접원 - 16-1번 향후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은 응답을 하시고, 16번 현재 장애인 복지 사업은 응답을 안 하셨네요?

참가자 - 지금 제가 장애인다는 것은 느끼지를 못 하니까. 답을 못 쓴 거죠. 16-1번은 향후니까. 앞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대답을 하고.

〈표 20〉 문16, 16-1 응답 오류

	오류 유형
참가자 3, 9, 11, 13	문 16에 제시된 이동지시문(“→16-1 항목으로”)을 보고 문 16은 무응답한 뒤 문 16-1번만 응답
참가자 7	본인에게 해당없는 항목이어서, 문 16은 무응답, 문 16-1은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응답

라. 노인 복지 부문

1) 문 17 본인의 노후 준비 방법

문 17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여부 및 준비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그림 17]). 「① 준비하고(되어) 있다」 경우는 가장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기입하고, 「②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장래의 노후 계획을 조사한다. 조사원보고에서 문 17은 응답자가 어려워한 문항 17위를 차지했다.

본인의 노후 준비 방법

17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그중 가장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써넣어 주십시오.

※ 국가 보조금은 노후를 위해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노후 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준비하고(되어) 있다 ②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주된 것 ☐ 부수적인 것 ☐

- 국민연금
- 기타 공적 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 사적 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 부동산 운용
- 주식, 채권 등
- 기타()

-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 준비할 능력이 없다
- 자녀에게 의지한다
- 기타()

[그림 17] 문 17 본인의 노후 준비 방법

인지면접에서 「① 준비하고(되어) 있다」 응답자(7/13명)의 면접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5명, 참가자 1, 6, 7, 10, 12). 그러나 해당하는 응답보기가 있어서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례들을 확인하였다(참가자 1, 6, 7, 10). 본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① 준비되어 있다」, 「② 준비되어 있지 않다」 모두에 응답하거나([그림 18], 참가자 7), 해당 보기 없이 준비여부만을 질문한다면 응답을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있었다(「① 준비되어 있다」, 「② 준비되어 있지 않다」, 참가자 10).

본인의 노후 준비 방법

17.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그중 가장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써넣어 주십시오.

※ 국가 보조금은 노후를 위해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노후 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준비하고(되어) 있다 ②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주된 것 ☐ 부수적인 것 ☐

1. 국민연금
2. 기타 공적 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3. 사적 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4.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5.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6. 부동산 운용
7. 주식, 채권 등
8. 기타(노령연금, 노인일자리)

- 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 ②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 ③ 준비할 능력이 없다
- ④ 자녀에게 의지한다
- ⑤ 기타(후회한다)

[그림 18] 문 17 응답오류_ 「① 준비됨」, 「② 준비되지 않음」 모두에 응답(참가자 7)

(인지면접_참가자 7)

면접원 - 문 17에 노후가 「① 준비되어 있다」, 「② 준비되어 있지 않다」 둘 다 응답하셨어요,

참가자 - 네, 생계유지는 연금이랑 노인 일자리 나가는 거에서 생활하고, 젊었을 때 몰라서 준비를 못한 걸 지금 후회한다는 거죠.

면접원 - 그럼 지금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가자 - 지금 안 되어 있죠. 보기에 있으니까 선택한 거지.

(인지면접_참가자 10)

면접원 - 노후준비가 국민연금으로 「①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셨어요,

참가자 - 국민연금 하나 있는 걸로 노후 준비 되었다고 하는 게 이상한데, 별로 안 되어 있지.

면접원 - 실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참가자 - 노후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국민연금하고.. 용돈 조금하고 노후 보장이 안 되지.

면접원 - 충분히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셨을까요?

참가자 - 항목이 있어서.

면접원 - 만약 「① 준비되어 있다」, 「②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만 있다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참가자 - 「②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 진짜 안 되어 있죠. 대책없이 살았어요.

노후 준비 방법의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모두 응답한 7명 중 5명은 「1. 국민연금」을 주된 것으로 선택하고(참가자 4, 5, 6, 7, 10), 그 외 군인연금(1명)과 예금적금(1명)을 주된 노후 준비방법으로 선택했다.

응답자들은 노후 준비의 ‘주된 것’을 선택 시 정기적·고정적 수입 여부 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였다. 금액은 적을 수 있으나, 정기적·고정적인 수입이 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5명, 참가자 1, 5, 6, 7, 10), 금액의 크기가 큰 것을 주된 것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2명, 참가자 4, 12).

(인지면접_참가자 6)

참가자 - 국민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월급 같은 거는 하다가 말 수도 있고.

면접원 - 지금 국민연금하고 급여하고는 어떤 게 더 많아요?

참가자 - 급여가 더 많죠. 그런데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은 나오고, 급여는 일 그만 두면 안 나오고.

면접원 -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국민연금을 응답하신 건가요?

참가자 - 네.

(인지면접_참가자 4)

면접원 -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수급, 주식이나 채권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주된 것으로 선택하신 기준이 뭔가요? 주식, 채권을 주된 것이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

참가자 - 앞으로는 주식, 채권이 더 커질 거 같은데, 수익이 현재는 안나고, 국민연금 소득이 더 크니까.

「②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에 응답한 6명 모두 장래계획을 묻는 질문에 「③ 준비할 능력이 없다」를 선택하였다(6/13명, 참가자 2, 3, 8, 9, 11, 13). 해당 참가자들은 60대 후반에서 80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연령대가 높아 취업 등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 무리가 있어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2) 문 20 생활비 마련 방법

문 20은 만 60세 이상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하는 문항이다 ([그림 19]).

생활비 마련 방법

20 귀하는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① 본인과 배우자 부담 ② 자녀 또는 친척 지원 ③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 ④ 기타()
(정부 보조 등)

①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② 재산 소득(이자, 임대 소득, 배당 소득 등)
③ 연금(개인 연금 포함), 퇴직 급여
④ 예금(적금)
⑤ 기타()

[그림 19] 문 20 생활비 마련 방법

이 문항에서는 인지면접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소득을 얻는 경우, 다수의 응답 오류가 발생했다. 응답자들은 보기항목으로 제시된 소득 경로 중 해당되는 모든 문항에 응답하거나 여러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 「⑤ 기타」로 응답하기도 하고(참가자 1, 7), 소득 경로 선택에 대해 고민하다가 응답을 포기하기도 했다(참가자 12).

또한 개인의 사적연금(「① 본인과 배우자 부담」에 포함)을 정부 지원(보조금)으로 잘못 이해하여 응답하기도 했다(「③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 참가자 1, 2).

(인지면접_참가자 7)

면접원 - 생활비를 주로 노인 일자리, 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용하시고, 자녀들이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응답을 「⑤ 기타」에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참가자 - 근로 소득도 들어가고, 애들한테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노인연금은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쓰고. 이 세 개를 써야 해서 「⑤ 기타」로 썼어요.

(인지면접_참가자 12)

면접원 - 생활비 마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시느지는 응답을 안 하셨네요?

참가자 - 임대 소득도 조금, 연금도 조금, 임대가 많긴 한데, 연금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도 애매해서요.

3) 문 22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현재 생존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는 항목으로, 순위 선택 및 이동지시와 관련된 문항이다([그림 20]). 많은 참가자가 일부 순위(1, 2순위)까지만 응답하였는데(7/13명

명, 참가자 1, 2, 5, 6, 8, 10, 11), 이들 대부분은 ‘해당 내용 없어서’ 3순위까지 선택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7명, 참가자 1, 2, 5, 6, 8, 10, 11).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22 현재 귀하는 자녀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각각 그 이유를 써넣어 주십시오.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같이 살고 있지 않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본인의 독립 생활(수입, 건강 등)이 불가능하므로	1. 본인의 독립 생활(수입, 건강 등)이 가능하므로
2. 자녀의 독립 생활이 불가능하므로(경제적·건강상 이유로)	2.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봐
3. 손자·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	3.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4. 모두 독립 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4.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5.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이므로	5.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6. 기타()	6. 기타()

[그림 20] 문 22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3순위까지 응답한 참가자(4명) 중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이유’는 1순위에, 나머지 2, 3순위는 ‘앞으로 같이 살지 않을 이유’를 응답하거나(참가자 3), 1순위는 같이 살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를, 나머지 순위는 그에 따르는 부수적 이유들을 응답하기도 하였다(참가자 7).

(인지면접_참가자 3)

면접원 - 자녀가 있으시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유로 1순위 「4.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2순위 「3.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3순위 「1. 독립생활이 가능해서」라고 하셨네요.

면접원 - 혹시 자녀가 몇 분이신가요?

참가자 - 둘 있는데요, 직장 때문에 같이 안 살죠. 같이 살고는 싶죠.

면접원 - 그럼 왜 2순위로 3번을 선택하셨을까요?

참가자 - 이게 내용을 다 채워야 되는 줄 알고, 만약에 4번 말고 따로 살고 싶은 이유를 또 고르라고 한다면 「3.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1. 독립생활이 가능해서」라는 거죠.

면접원 - 현재 따로 사는 이유는 1순위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건가요?

참가자 - 네.

면접원 - 앞으로 따로 살고 싶은 이유는 2순위, 3순위로 선택하신 건가요?

참가자 - 그렇죠.

마. 사회참여 부문

1) 문 26, 26-1 사회적 관계망

2019년에 추가된 신규 문항으로, ‘하루 평균’ 교류하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한다([그림 21]). 추가 조사원 보고에서 응답자가 어려워한 문항 18위였으며, 관련 문항인 문 26도 16위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	
2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 2. 갑자기 큰돈을 벌려야 할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 ()명 ② 없다	26-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 있다 ()명 ② 없다

[그림 21] 문 26, 26-1 사회적 관계망

문 26에서는 응답기준 시점인 ‘하루 평균’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 오류가 있었다(7/13명, 참가자 3, 7, 8, 9, 10, 11, 12). ‘일주일’이나 ‘한 달’ 등 다른 기준으로 응답하거나(참가자 8, 9, 11, 12), 한 달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데 기준이 하루 평균이어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8). 뿐만 아니라 기간에 관계없이 연락 가능한 사람 전체를 응답하기도 했다(참가자 3, 7, 10).

(인지면접_참가자 12)

면접원 - 평소 가족 또는 친척 열 분, 가족 또는 친척 이외에 여덟 분하고 연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하루 평균 연락하는 경우인가요?

참가자 -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닌데?

면접원 - 처음 응답하셨을 때 며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참가자 - 일주일.

〈표 21〉 인지면접: 문26-1 사회적 관계망 응답 오류

	오류 유형
참가자 8, 9, 11, 12	하루 평균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한 달, 일주일) 응답
참가자 8	한 달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데, 기준이 하루 평균이어서 응답 안함
참가자 3, 7, 10	기간에 관계없이 연락 가능한 사람 전체를 응답

이 밖에도 응답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가족 또는 친척」,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응답하기도 하였다(참가자 2, 7).

26-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 (10)명 ② 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 있다 (10)명 ② 없다

[그림 22] 문 26-1 응답 오류_1, 2에 모두 동일한 사람을 응답(참가자 10)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1. 가족 또는 친척」,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에 모두 딸을 포함한 응답자는 딸은 혈육관계니까 「가족」에 포함되고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으므로 「가족 외 사람」으로도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참가자 2). 또 한 참가자는 「1. 가족 또는 친척」,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에 각각 10명을 응답하였으나, 10명 모두 동일한 사람인 경우도 있었다([그림 22], 참가자 10).

2) 문 27 단체참여

문 27은 지난 1년 동안 단체 참여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매트릭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원 보고에서 응답자가 어려워한 문항 19위였으며, 응답오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6/13명, 참가자 8, 9, 10, 11, 12, 13). 이 중에는 응답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참여한 항목에만 표시하거나([그림 23], 참가자 8), ([그림 24], 참가자 12)), 제시된 단체들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위 응답보기 항목인 「② 참여하지 않았다」에 응답하는 등([그림 25], 참가자 13) 다양한 오류 사례가 나타났다.

단체 참여

2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 5. 15. ~ 2019. 5. 14.) 다음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1. 친목 및 사교 단체(계, 동창회 등)	○	
2.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3.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		
4.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5. 학술 단체		
6. 이익 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7. 정치 단체		
8. 지역 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9. 기타()		

[그림 23] 문 27 응답오류_ 참여한 항목만 ○ 표시(참가자 8)

단체 참여

2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 5. 15. ~ 2019. 5. 14.) 다음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1. 친목 및 사교 단체(계, 동창회 등)	✓	
2.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	
3.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	✓	
4.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	
5. 학술 단체		
6. 이익 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7. 정치 단체		
8. 지역 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9. 기타()		

[그림 24] 문 27 응답오류_ 참여한 항목만 ✓ 표시(참가자 12)

단체 참여

2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 5. 15. ~ 2019. 5. 14.) 다음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참여했다	✓ ② 참여하지 않았다
1. 친목 및 사교 단체(계, 동창회 등)		
2.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3.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		
4.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5. 학술 단체		
6. 이익 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7. 정치 단체		
8. 지역 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9. 기타()		

[그림 25] 문 27 응답오류_ 상위 응답보기에 응답(참가자 13)

3) 문 30 기부 희망 분야

기부활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문 29에서 기부내용을, 문 30에서 기부한 현금/물품이 쓰일 희망분야를 조사한다([그림 26]).

순위 선정 문항이지만, 응답 대상자(기부 경험자 6명) 모두 일부 순위까지만 응답하였다. 이들은 1순위만 응답하거나(3명, 참가자 1, 6, 11), 2순위까지만 응답하여(3명, 5, 9, 12) 3순위까지 응답한 참여자가 없었다.

[그림 26] 문 30 응답오류_1순위만 응답(참가자 1)

4) 문 31 기부 문화 확산

문 31은 기부 경험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그림 27]). 순위 선정 및 이동지시 관련 문항이며, 고령자 대상의 문항으로 적합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항이기도 하다. 조사원 보고에서 응답자가 어려워한 문항 1위였으며,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응답자들이 문 31을 어려워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되었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1, 5)

조사원 1 - 기부해 본 적이 없는데 질문을 하니깐 처음부터 곤란해 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찾으려고 하세요. 기부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질문이 나오니까.

조사원 5 - 나이 드신 분들은 기부가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부가 문화라고 절대 생각 안하죠.

[그림 27] 문 31 기부 문화 확산

인지면접에서는 문 31이 3순위까지 선택하는 문항이지만, 일부 순위까지만 응답한 참가자들이 있었다(4명, 참가자 1, 2, 6, 13). 이 외에도 질문 내용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어려운 문항이라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생각해 본 적 없는 분야라 모든 항목이 고민스러웠거나(참가자 5), 기부 경험이 없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문항이 아닌데 응답해야 해서 어려웠다고 언급했다(참가자 7).

(인지면접_참가자 5)

면접원 - 문항이 어떠셨나요?

참가자 - 다 고민스러웠어요.

면접원 - 왜 고민스러우셨을까요?

참가자 - 전반적으로 나한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인지면접_참가자 7)

면접원 - 질문이 어떠셨어요?

참가자 - 약간 어렵다고 느꼈어요.

면접원 -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을까요?

참가자 - 나는 못하면서 남들 기부 문화를 체크해야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웠고, 잘 모르고 하나씩.

5) 문 34 자원봉사활동

문 34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연간 참여 횟수와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조사한다([그림 28]).

자원봉사 활동

3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 5. 15. ~ 2019. 5. 14.)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활동 분야별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 활동 주기를 써넣어 주십시오.

①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활동 분야	참여 횟수(연간)	활동 시간	활동 주기
1.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복지 시설, 병원, 개인 가정 봉사, 방과 후 교실 등)	총 회	1회 평균 시간	① 주 단위 ② 월 단위 ③ 분기(3개월)단위 ④ 반기(6개월)단위 ⑤ 기타() ⑥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2. 환경 보전, 범죄 예방 등과 관련 (마을 청소, 방범 활동 등)	총 회	1회 평균 시간	① 주 단위 ② 월 단위 ③ 분기(3개월)단위 ④ 반기(6개월)단위 ⑤ 기타() ⑥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3. 자녀 교육 등과 관련 (일일 교사, 교통 지도 등)	총 회	1회 평균 시간	① 주 단위 ② 월 단위 ③ 분기(3개월)단위 ④ 반기(6개월)단위 ⑤ 기타() ⑥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4. 국가 및 지역 행사 등과 관련 (스포츠, 문화 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총 회	1회 평균 시간	① 주 단위 ② 월 단위 ③ 분기(3개월)단위 ④ 반기(6개월)단위 ⑤ 기타() ⑥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5. 재해 지역 주민 돌기 및 시설 복구 등과 관련(해외 구호 포함)	총 회	1회 평균 시간	① 주 단위 ② 월 단위 ③ 분기(3개월)단위 ④ 반기(6개월)단위 ⑤ 기타() ⑥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관공서 업무 지원, 무료 상담 등)	총 회	1회 평균 시간	① 주 단위 ② 월 단위 ③ 분기(3개월)단위 ④ 반기(6개월)단위 ⑤ 기타() ⑥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②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없다 → **36** 항목으로

[그림 28] 문 34 자원봉사활동

인지면접에서 「①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총 5명으로, 이들 중 자원봉사 활동 경험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3/5명). 이들은 누락 이유로 응답방법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나, 실제 면접내용은 본인들의 행동을 봉사활동에 포함하여 생각하지 않다가 면접 시 캐어문기를 통해 봉사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참가자 1, 3, 4).

이외에도 응답 기준인 1회 평균 활동시간 대신 연간 활동시간으로 잘못 인식하여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2/5명, 참가자 7, 12).

(인지면접_참가자12)

면접원 - 평균 활동시간이 150시간인데, 1년에 하시는 전체 시간을 적으신 건가요?

참가자 - 네, 그 이상 될 건데 그냥 150시간이라고 했어요.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 「②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없다」로 응답해야 하지만, 지침에 맞게 응답한 경우는 3명이었으며(참가자 5, 8, 9),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5명, 참가자 2, 6, 10, 11, 13).

(인지면접_참가자 10)

면접원 - 여기 자원봉사에는 응답을 안 해주셨네요.

참가자 - 자원봉사는 한 적이 없으니까.

면접원 - 아, 한 적이 없어서 응답을 안 하셨군요?

참가자 - 네, 한 적이 없어요.

문 34의 내용이 고령층에 적합한 문항이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해당 참가자는 본인 몸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 여부를 묻는 것은 고령 응답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참가자 5).

(인지면접_참가자 5)

참가자 - 나이가 60~70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자원봉사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몸이 아픈 증세가 자꾸 여기저기 나타나고. 자원봉사 이런 거 보다는 내 몸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걱정이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질문 자체가 이 나이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죠, 그렇죠?

면접원 - 연세 드신 분들께 적합한 문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참가자 - 네.

6) 문 35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문 34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그림 29]), 2019년 추가된 신규 문항이다. 오류사례를 살펴보면, 문 34의 봉사활동 참여자 중 문 34의 자원봉사 내용이 전문성을 활용한 경우인데(노인 이송), 문 35에 활동 경험 내용을 누락하였다가 면접 시 기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1/4명, 참가자 3). 이와 반대로 문 34에 「②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없다」로 응답하면 문 35의 응답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동지시문을 준수하지 않고 문 35에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6, 8).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3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8. 5. 15. ~ 2019. 5. 14.) 본인의 직업,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하여 봉사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된 봉사 활동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있다

① 이용, 미용
② 요리
③ 의료
④ 아동 학습 지도(방과 후 교실 등)
⑤ 통역과 번역
⑥ 공연(악기 연주, 춤, 연극 등)
⑦ 평생학습 관련(컴퓨터, 한글, 악기 등)
⑧ 전문 상담(법률, 세무 등)
⑨ 운전(장애인 이동 지원, 구호 물품 배달 등)
⑩ 주택 수리(보일러, 도배 등) 및 기타 유지 보수
⑪ 기타()

② 없다

[그림 29] 문 35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또한 응답보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2/4명, 참가자 7, 12). 이들은 「⑤ 통·번역(점자)」을 「⑦ 평생학습 관련(컴퓨터)」으로 응답하거나, 「⑩ 주택 수리(보일러)」를 「⑪ 기타(보일러 수리)」로 응답하였다.

7) 문 38, 38-1 계층 이동

문 38과 38-1은 사회 전반적인 이동가능성과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용이성 파악을 위한 문항이다([그림 30, 31]). 지침서에 응답자 개인이나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이 본인이나 본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였다(문 38에 본인 기준 응답 10명, 문 38-1에 본인 자녀 기준 응답 11명, <표 22> 참고). 특히 문 38-1은 응답자 본인 자녀의 미래 상황이 본인 또는 현재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7/13명, 참가자 1, 2, 3, 7, 9, 10, 11).

38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비교적 높다
③ 비교적 낮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그림 30] 문 38 개인의 계층이동

38-1 우리 사회에서 현재 자신의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비교적 높다
③ 비교적 낮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그림 31] 문 39 자식세대 계층이동

(인지면접_참가자 10)

면접원 - 자식 세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② 비교적 높다」고 응답하셨어요.

참가자 - 큰 희망은 아니고, 나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희망 사항.

〈표 22〉 문 38, 38-1 계층이동에 대한 응답 기준

응답자 번호	문 38 개인의 계층이동	문38-1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1	본인	본인 자녀
2	사회	사회
3	본인	본인 자녀
4	본인	본인 자녀
5	본인	본인 자녀
6	본인	본인 자녀
7	사회	본인 자녀
8	본인	본인 자녀
9	본인	본인 자녀
10	사회	본인 자녀
11	본인	본인 자녀
12	본인	사회
13	본인	본인 자녀

문 38과 38-1은 조사원 보고에서 응답자들이 어려워 하는 문항 2위(문 38)와 7위(문 38-1)였으며, 초점집단면접의 조사원들과 인지면접 참가자들이 해당내용이 고령층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초점집단면접에서는 고령층의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응답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다.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계층이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나이가 아니며, 계층이 이동될 가능성도 낮아 이런 질문이 고령층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참가자 5, 7, 13).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5, 2)

조사원 5 - 노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는 없잖아요. 생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층이동을 따지고 할 게 없죠.

면접원 - 변화 가능성이 없는데 질문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사원 5 - 그렇죠. 괜히 반감만 사고, 뭐라고 물어 보기가 난처해요. 이해도 어렵고.

조사원 2 - 3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어 드리면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가능성이 높다, 낮다 대답하기가 어렵죠.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앞으로 높아질 거 같아요?” 하면 “모르겠어!” 이러세요. 그나마 38-1번은 내가 아니라 자식 세대라니까 덜 어려워하시고요.

(인지면접_참가자 5)

면접원 -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③비교적 낮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참가자 -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더 나빠지지 않길 바랄 뿐이지. 기대를 한다면 애들이 좀 잘 벌어서 준다면 좋고, 이런 거지. 지위 향상은 나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바. 문화와 여가 부문

1) 문 45, 45-1 여가활용 및 주로 함께 하는 사람

문 45은 여가 활용방법을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문45-1은 문45에서 1순위에 응답한 여가 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 조사한다([그림 32]).

문 45는 조사원 보고에서 어려운 문항 8위였으며, 초점집단면접에서는 고령 응답자 대부분의 주말과 주중 여가활용 내용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공유되었다. 인지면접에서도 주말과 주중의 활용 내용을 동일하게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다(5/13명, 참가자 1, 4, 8, 11, 13). 이 외에 제시된 응답보기 항목들에 비슷한 항목이 많아 항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응답한 참가자도 있었다(참가자 9).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1, 5)

조사원 1 - 노인들에겐 주말, 주중이 없습니다. 주말, 주중 다 똑같습니다.

조사원 5 - 직장을 안 가니까 주말과 주중의 구분이 없고, 주말, 주중을 구분해서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45 귀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써넣어 주십시오.)

주 중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주말(휴일 포함)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TV시청(유선방송, IPTV, DVD(비디오) 시청 등)
2. 문화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3. 문화예술 참여(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4. 스포츠 관람
5. 스포츠 활동
6. 관광(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8. 취미, 자기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9. 휴식(수면, 사우나 등)
10. 사회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11. 기타()

45-1 귀하는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써넣어 주십시오.)

주중 : ☐ 주말(휴일 포함) : ☐

1. 가족과 함께
2.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3.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활동을 통해서
4. 혼자서
5. 직장 동료와 함께
6. 기타()

[그림 32] 문 45, 45-1 여가활동 및 주로 함께 하는 사람

또한 문 45와 문 45-1이 연결되는 문항임에도 연계된 질문으로 인식하여 응답한 경우가 적었다. 예를 들어, 문 45의 1순위 활동을 함께 한 사람과 문 45-1에서 선택한 대상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함께 한 사람으로 응답한 대상과 무슨 여가 활동을 하는지 순서를 바꿔서 질문하자, 문 45에서 선택하지 않았거나 2·3순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답변한 사례가 있었다(8/13명, 참가자 2, 4, 5, 6, 7, 8, 11, 13).

〈표 23〉 인지면접: 문46-1 여가 활동 함께 한 사람 응답 오류

	오류 유형
참가자 2, 4, 5, 6, 7, 8, 11, 13(8명)	문 45의 1순위 활동을 함께 한 사람과 문 45-1에서 선택한 사람 다름

구체적인 응답 사례를 살펴보면, 한 참가자는 문 46에서 주말 여가시간 활동을 「5. 스포츠 활동」(테니스), 「1. TV 시청」, 「3. 문화예술 참여」(트럼펫 연주) 순으로 응답했는데, 문 45-1의 주로 함께 하는 사람으로 「4. 혼자서」를 선택했다. 실제 면담 내용은 문 45의 1순위인 스포츠 활동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하고, 문 45-1에서 선택한 「4. 혼자서」한 활동은 문 45의 2순위인 「1. TV 시청」이었다(사례 1, 참가자 4).

다른 참가자는 주말과 주중의 여가활동을 동일하게 응답(1순위 「1. TV 시청」, 2순위

「10. 사회 및 기타활동」(종교활동), 3순위 ‘없음’이었으나, 문 45와 45-1 두 문항이 연계된 질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함께 한 사람을 응답하지 않았다(사례 2, 참가자 8). 또 다른 참가자는 주중(「1. TV 시청」)과 주말(「11. 기타」(아내 요양원 방문))의 1순위 활동이 달랐으나, 함께 한 사람을 주말은 응답하지 않고, 주중 「4. 혼자서」에만 응답하기도 했다(사례 3, 참가자 7).

- (사례 1) 문 45 주말: 1순위 TV 시청, 2순위 스포츠 활동, 3순위 문화예술 참여
문 45-1 주말: 혼자서 ☞ 2순위 TV 시청에 대한 응답(참가자 4)
- (사례 2) 문 45 주중주말: 1순위 TV 시청, 2순위 종교활동, 3순위 없음(선택 안함)
주중주말: 응답하지 않음
문 45-1 ☞ 문 45와 45-1 문항을 연계 질문으로 인지하지 못함(참가자 8)
- (사례 3) 문 45 주중: 1순위 TV 시청, 주말: 1순위 아내 요양원 방문
주중: 혼자서, 주말: 응답하지 않음
문 45-1 ☞ 주중 활동에 대해서만 응답(참가자 7)

2) 문 46, 46-1 여가 활용 만족도 및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

평소 응답자의 여가생활 활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 여부(문 46)와 여가 활용 불만족 시 만족도와 여가활용에 영향을 주는 제약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주된 것 하나만 조사한다(문 46-1).

응답자들은 문 45(여가 활용)와 45-1(주로 함께 하는 사람), 문 46(여가 활용 만족도)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 45와 45-1의 여가생활 내용에 응답했으나, 문 46에는 여가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⑤ 매우 불만족」에 응답하거나(참가자 6, 8), 무응답하는 사례가 있었다([그림 33], 참가자 11).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실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인지면접_참가자 8)

면접원- 45번 여가 시간은 주로 TV를 보신다고 응답하셨네요. 주중에. (중략)

면접원- 여가생활에는 「⑤ 매우 불만족」이라고 하셨네요.

참가자- 네, 여가활동 하는 게 없으니까.

면접원- 그럼 앞에 말씀하신 TV 보시고, 교회 가는 걸 여가활동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참가자- 네.

이 밖에도 문 46의 이동지시문을 잘못 이해하여 문 46-1 응답 대상자가 아닌데 응답하거나(4명, 참가자 2, 3, 11, 13), 이동 안내가 있는 문항(문 46)은 응답을 하지 않고, 다

음 문항(문 46-1)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참가자 2, 3, 11). 일부 참가자들은 이들 오류가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였다([그림 33], 참가자 2, 3, 11).

[그림 33] 문 46, 46-1 응답 오류 및 이동 오류(참가자 11)_ (응답 오류) 문 46은 무응답하고 문 46-1만 응답, (이동 오류) 문 46-1에 응답 비대상인데 응답

사. 소득과 소비 부문

1) 문 51 건축소비 지출항목

[그림 34] 문 51 건축소비 지출항목

문 51은 가구 재정상황이 악화된다고 가정하여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일 항목을 조사한다([그림 34]).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일부 순위까지만 응답하거나(1순위 2명(참가자 8, 13), 2순위 2명(참가자 6, 11)), 현재 소비하는 부분에서만 지출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8명, 참가자 4, 6, 7, 8, 9, 10, 11, 13). 이들은 대부분 현재 지출 중인 항목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였고, 돈 쓰는 항목이 없어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참가자 8). 이러한 응답 경향은 고령층이 전반적으로 가상 상황

을 설정 후,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지면접_참가자 10)

면접원 - 가장 먼저 줄이실 게 「2. 외식비, 8. 연료비, 5. 교통비」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참가자 - 외식비라고 해서 엄청 먹는 것도 아니지만, 줄인다면 외식비에서 줄이고 연료비는 겨울 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료비니까. 그리고 핸드폰비 같은 거.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줄여야죠.

면접원 -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것들이네요?

참가자 - 네, 다 그렇죠. 더 줄일 것도 없는데 사실은.

2) 문 53 소비생활 만족도

문 53은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도 조사한다([그림 35]).

문 53은 응답보기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상황에 대한 적응, 즉 소득에 맞춰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을 「③ 보통이다」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참가자 1, 5, 6, 10).

[그림 35] 문 53 소비생활 만족도

(인지면접_참가자 5)

면접원- 현재 전반적인 소비활동에 대해 「③ 보통이다」로 응답하셨네요.

참가자- 불만족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만족한다고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이죠.

(인지면접_참가자 10)

면접원 - 소비생활 만족도는 「③ 보통이다」이라고 하셨네요.

참가자 - 보통도 아니야. 별로 안 써.

면접원 - 소비가 많지 않아서 「③ 보통이다」라고 하신 건가요?

참가자 - 많이 안 쓰니까.

면접원 - 만약 이걸 빈란으로 두고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쓰실 거예요?

참가자 - 그냥 최소한의 소비만 한다. 돈이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즐겁게 살자.

아. 노동 부문

1) 문 54 직업 선택 요인

현재 자기 직업과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한다([그림 36]). 이때 중요도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조사원 보고에서 응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항 4위였으며, 초점집단면접에서 조사원들은 문 54가 고령층 응답자들에게 관계없는 내용의 문항임을 밝혔다.

[그림 36] 문 54 직업 선택 요인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일반적 기준이 아닌 본인 경험 등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11/13명, 참가자 1, 2, 4, 6, 5, 7, 8, 9, 11, 12, 13). 예를 들면, 이들은 현재 상태가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6. 장래성」을 선택하거나(참가자 4), 직업을 선택할 나이가 아니라서 「9.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참가자 2, 8, 13). 특히 한 참가자는 본인과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무응답하였다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선택하도록 요청했을 때 응답을 변경하기도 했다(참가자 8).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1)

조사원 - 이 문항은 노인분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질문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때를 묻는 거지만, 어르신들은 나에 대해서 묻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나와 관계가 없는 걸로 여겨요. 직업을 선택하는 자체가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런 거 같아요.

(인지면접_참가자 13)

면접원 - 직업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을 「9.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셨어요.

참가자 - 나이가 있는데 무슨 직업... 내가 젊어서 돈 번다고 하면 이것저것 막 비교해서 찾겠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걸 모른다는 거지.

(인지면접_참가자 8)

면접원 - 직업 선택에서 고려할 내용은 선택 안 하셨네요.

참가자 -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요?

면접원 - 만약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걸 골라 본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참가자 - 일반적으로 보면 우선 「2. 안정성」이겠죠.

응답보기를 살펴보면 「2. 안정성」 항목은 지침서에 신분 보장이 확실하고 경기침체 및 기타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직장(업)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지침서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명, 참가자 1, 4, 7, 9, 12). 해당 응답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 지급’이나 ‘고정적인 월급’, ‘안전’과 혼동하여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수입(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거나(참가자 9), 고정적·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이해했다(참가자 12). 그 외에도 위험하지 않은 일, 다치지 않고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참가자 1, 4, 7), 즉 일반적으로 ‘안전성’으로 이해되는 개념과 혼동하여 이해하기도 했다.

(인지면접_참가자 7)

면접원 - 「2. 안정성」은 어떤 걸 생각하고 선택하셨어요?

참가자 - 내 힘에 미치는 걸 해야지, 젊은 사람마냥 시멘트를 옮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면접원 - 그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가자 - 네.

(인지면접_참가자 11)

면접원 - 여기에 「2. 안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가자 - 나이 먹었으니까 위험하다든가 하는 건 안하고.

면접원 - 아, 위험한 작업은 안 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참가자 - 네.

2) 문 56, 57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및 장애 요인

문 56과 57은 개인의 경험이 아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 취업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그림 37]).

이 문항들은 조사원 보고에서 어려워하는 문항 10위(문 56)와 6위(문 57)로, 순위 선정 문항 유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부 순위까지만 응답하는 오류가 확인되었다(3명, 1, 2, 13). 이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참가자 1), 3순위까지 응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순위까지만 응답했다고 하였다(참가자 2, 13). 이외에도 질문의 내용이 본인과 관련 없다고 언급한 참가자들도 있었다(참가자 1, 6, 11).

56 귀하는 여성 취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①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

② 결혼 전까지만

③ 첫 자녀 출산 전까지만

④ 자녀가 성장한 후

⑤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② 취업보다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57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불평등한 근로 여건(채용, 임금 등)
3. 구인 정보 부족
4. 육아 부담
5. 가족 돌봄(육아 제외)
6. 가사 부담
7. 기타()
8. 잘 모르겠다

[그림 37] 문 56, 57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및 장애 요인

3) 문 59 일·가정생활의 우선도

현재 취업자(7/13명, 참가자 3, 4, 5, 6, 7, 9, 10)를 대상으로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조사한다([그림 38]).

면접 과정에서 ‘일’을 일에 투자되는 물리적 시간이나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이해하여 「③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에 응답한 사례를 확인하였다(참가자 4, 5, 6, 10). 이들은 본인의 일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으로 물리적 소요시간이 짧은 업무를 담당하여, 일반적인 고용상황(9시 출근, 6시 퇴근 등)과 다른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59 귀하는 현재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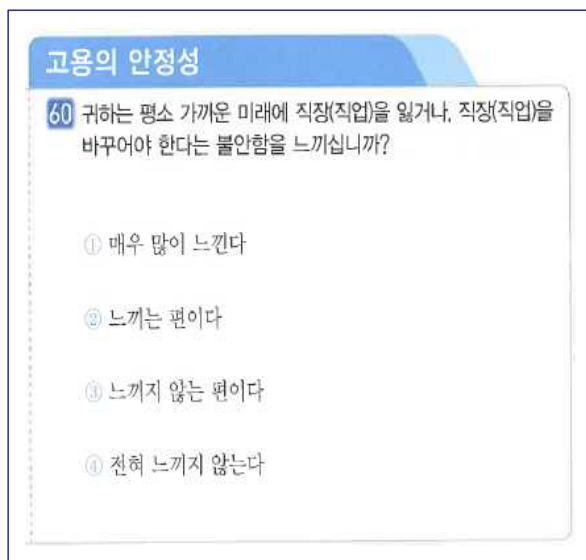
- ① 일을 우선시한다
- ②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 ③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 ④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 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그림 38] 문 59 일·가정생활의 우선도

「① 일을 우선시한다, ②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들은(3명, 참가자 3, 7, 9) 1인 가구여서 신경 쓸 가정생활이 없거나(참가자 7, 9),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하였다(참가자 3).

4) 문 60 고용 안정성

문 60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는지 조사하는 문항이다([그림 39]). 고령층 응답자들은 고용 관련 문항에 대해 본인들과 관계없는 항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초점집단면접과 인지면접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림 39] 문 60 고용 안정성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응답자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퇴사계획이 있는 경우, 직업이 바뀔 예정이어서 「① 매우 많이 느낀다」로 응답하거나(참가자 9), 본인 업무가 단기 취업(아르바이트, 취업 지원 사업)임을 알고 있어서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참가자 5, 7, 10). 또한 본인은 아르바이트 중이어서 직장으로 인식하지 않아, 직장 관련 문항(문 60~64)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참가자 5).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5, 3)

조사원 5 - 어르신들은 시니어 일자리 이런 거 하시는데, 하루 서너 시간씩 서너 달 일하시는데,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직장명, 근로만족도 이런 거 본인은 해당 없다고 하시고, 다 모른다고 하세요.

조사원 3 -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 물어 보면 ‘하루 2~3시간 하고 오는데, 무슨 안정성이나?’ 라고 하시죠.

(인지면접_참가자 10)

면접원 - 직장을 바뀌어야 한다는 불안감은 느끼지 않으신다고 하셨네요.

참가자 - 지금 일하시는 게 임시직, 공공근로로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불안하지는 않아요.

(인지면접_참가자 5)

면접원 - 60번부터는 응답을 안 하셨네요? 왜 안 하셨을까요?

참가자 - 내가 아르바이트라 일시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 다닐 때, 해당하는 거 같아서.

면접원 - 60번부터는 선생님이 응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셨나요?

참가자 - 네, 그래서 하려다가 안했어요.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거를 꼭 응답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5) 문 64 근로여건 만족도

현재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여건 관련 사항들을 조사한다(응답 대상자 5명, 참가자 5, 6, 7, 9, 10). 문 64에 제시된 다양한 근로여건 항목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의 조사원들이나 인지면접 참가자들은 고령층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점집단면접_조사원 1, 2)

조사원 1 - 요즘은 70, 80세면 나라에 고용되어서 일 하십니다. 노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거의 월 30만 원 이하로 받아요. 근데 이거를 직장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질문해야 하니까 곤란해요. 은퇴 이후에 생긴 일이잖아요. 시니어 일자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하고는 다르게 질문을 간소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사원 2 - 근로 만족도인데 어르신들은 이해도 못 하시고, 문제도 ‘하는 일’ 이런 거 정도면 괜찮은데 승진, 복지 후생, 장래성. 이런 건 조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지면접_참가자 10)

면접원 - 64번은 「1. 하는 일」에만 「③ 보통이다」 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왜 체크를 안하셨을까요?

참가자 -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로 여건이라는 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 싶어서.

면접원 - 해당 사항이 없는 문항이라고 느끼셨나요?

참가자 - 네,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현직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인지면접에서는 「2. 인사관리, 4. 복리후생, 5. 장래성, 9. 일·가정 양립, 10. 폭력방지, 11. 교육훈련기회」 항목에 ‘해당 없음’ 또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표 24> 참고). 특히 「9.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림 40], 참가자 9, 10), 일·가정양립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해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참가자 6).

(인지면접_참가자 6)

면접원- 64번은 ‘해당 없다.’ 라고 하신 게 몇 개 있네요. ‘해당 없다.’ 로 응답하신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참가자- 인사 관리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면접원- 9번은요? 「9.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는 응답을 안 하셨네요?

참가자- 9번. 이거는 뭔가 몰라서 안 했고.

〈표 24〉 문 64 근로여건 만족도

	응답 사례 수	
	해당 없음	모르겠음
1. 하는 일	-	-
2. 인사관리(승진, 배치)	4	-
3. 임금(일에 비해)	-	-
4. 복리 후생	3	-
5. 장래성	3	-
6.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	-
7.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	-
8. 근로시간	-	-
9. 일·가정양립문화	3	2
10. 직장 내 폭력 방지 노력	4	-
11.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3	-
1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	-

64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 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 표를 해 주시고, 근로 여건을 고려한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종사상의 지위가 '임금 근로자'인 분만 써넣어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모르겠다	⑦ 해당 없다
1. 하는 일			9				
2.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
3. 임금(일에 비해)			○				
4. 복리 후생							○
5. 장래성							○
6. 근무 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				
7. 인간관계(상하, 동료간)		○					
8. 근로 시간				○			
9.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	
10. 직장 내 폭력(언어 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
11.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				
1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				

주: 면접 시 변경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

[그림 40] 문 64 응답오류_ 「1. 하는 일」 외에 모든 항목에 무응답(참가자 10)

제4장 종합 논의

사회조사는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늘어가는 고령층 조사 응답자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지적 기법을 적용하여 고령자 조사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과 검토사항들을 제언하고, 고령 응답자에게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에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조사 중 가구주용 조사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조사원 보고와 조사원 초점집단면접, 인지면접 방법을 적용하였다. 2019년 사회조사 진행 시 수집·분석한 조사원 보고를 통해 초점집단면접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전반적인 조사 응답과정을 이해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인지면접지침을 작성하고, 해당 항목들을 중심으로 인지면접을 진행하였다.

사회조사 조사표는 기존에 진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정·개선되고,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를 공표하는 문항들이 많아 개별 항목들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원 보고와 초점집단면접, 인지면접 결과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나 어려워한 항목으로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종합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조사 진행 시 고령층 대상 조사가 대부분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고령 응답자들에게 동일 문항이나 응답 보기에 대한 반복 설명이 필요하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조사원들에게서 조사 제한 연령 설정과 고령자 대상의 별도 조사표 구성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사원 보고와 인지면접을 통해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 소요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고령층 응답자들이 어려워한 문항들을 알 수 있었는데, 고령층 응답자들은 특히 순위 선정 형태와 이동지시문 관련 문항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순위 선정 문항은 조사 진행 시 응답 확보가 어렵고, 인지면접에서 일부 순위까지만 응답하는 오류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응답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 응답하는 오류들도 발생하였다. 이동지시문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여 오류 발생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 응답자들은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내용이 본인과 관계없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예, 고용 관련 문항 등)에 거부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무응답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고령자 대상의 사회조사 조사표 설계와 구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조사가 대부분 면접으로 진행되며,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사표 작성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현재 조사표보다 축소된 문항의 조사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의 범위 조정은 조사대상 연령의 상한을 제시하여 일정 연령 이하의 응답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조사표 문항 축소는 현재 조사표에서 고령자와 관계없는 질문이나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거나 제외하여 고령자들이 응답할 전체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조사표 구성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에서 고령자 대상 조사표는 고령자에게 맞는 질문 형식과 적합한 항목 구성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어려워하는 순위 선정 형태나 이동지시문 등 복잡한 형식의 문항을 단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제언된 문항들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원 보고에서 응답자가 어려웠던 문항 상위 10개 문항들과 인지면접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응답자가 직접 언급한 문항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점, 고령층 응답자들은 문항 이해가 어렵거나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항으로 생각하는 경우 무응답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갖춘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경로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사회조사의 고령자 조사표 개발 시 검토사항과 유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안은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구체적인 개선이나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처럼 큰 틀에서 검토사항들이 제시되고, 개별 항목들에 대한 세부 개선사항들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조사표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진 점과 세부 문항별로 연령별 비교자료들이 공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이 본 연구에서 가능한 진행 방안이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실제 고령자 조사표가 개발될 경우, 연령 제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부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소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과 고령자 중에서도 높은 연령대(80대 이상)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80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연령 기준 이상의 다양한 고령 참가자의 참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2010).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 김용탁(2007). 고령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박문철(2006).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 법·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노사관계학과, 석사논문.
- 박영실 · 박현정 · 윤연옥(2013). 조사표 평가방법에 관한 최근 동향. 한국조사연구학회 vol.14-2.
- 박주언 · 박선희(2017). 사회조사 조사표 개선 I: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부문. 통계개발원.
- 박주언 · 박선희(2018). 사회조사 조사표 개선 II: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통계개발원.
- 박주영(2013).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박혜전(2007). 노령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 169-195.
-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9a). 2019년 사회조사 지침서.
- 통계청(2019b).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보도자료).
- 통계청(2019c). 2019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 Companelli, P. C., Martin, E. A., and Rothgeb, J. M(1991). The Use of Respondent and Interviewer Debriefing Studies as a Way to Study Response Error in Survey Data. the Statistician 40: 253-264.
- Hughes, K. A.(2004). Comparing pretesting methods: Cognitive interviews, respondent debriefing, and behavior coding. Census Bureau.
- Morgan, D. L.(1997).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1. Thousand Oaks, C.A.: Sage.
- Morgan, D. L. & Krueger, R. A.(1993). When to use focus group and why. Newbury Park, C.A: Sage.
- R. A. Krueger(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Focus Group Kit 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 A. Krueger, and M.A. Casey(2009).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4t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ourangeau, R., L. J. Rips., and K. Rasinski(2000). The psychology of survey response. Cambridge.

집필진

- 백선미(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 박선희(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연구보고서 2019-18

사회조사 고령자 조사표 개발을 위한 인지적 기법 적용 연구

인	쇄	2020년 5월 18일
발	행	2020년 5월 19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